

러시아 버전 '백조의 호수' 감동

광주시립발레단 정기공연 성료 ... 의상·안무·무대 등 눈길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최태지)의 정기공연 '백조의 호수'가 열린 지난 14일 오후 광주문화예술회관은 공연 시작 전부터 관객들로 북적였다.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세대를 비롯해 데이트를 하러 온 청년 부부와 젊은 연인들, 무더위를 피해 부모님을 따라 공연을 관람하러 온 어린이들까지... 관객들로 가득찬 공연장을 통해 '백조의 호수'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광주시립발레단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122회 정기공연 '백조의 호수'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최태지 예술감독이 취임한 후 처음 선보이는 정기공연으로 3회 공연 모두 매진을 기록했다. 공연예산은 총 5억으로 지난 2014년 올린 '백조의 호수' 예산이 90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큰 비용이 투입된 작품이다.

이번 작품에는 시립발레단 역대 클래식 작품 중 최대 무용수와 150여 명의 제작진이 투입됐으며 처음으로 선보이는 러시아 버전이다. 안무가 유리 그리고로비치와 최태지 감독, 박태영 지휘자,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대표 김유정의 참여로 화제가 됐다.

공연에는 워싱턴 발레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은원, 국립발레단을 대표하는 수석무용수 이동훈, 시립발레단의 신승현, 보그단 플로피뉴, 강은혜, 이기행 등이 출연해 서로 다른 색깔의 무대를 보여줬다.

14일 공연에는 시립발레단의 신입단원인 이기행, 강은혜가 주인공으로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지난 3월 첫 출근을 한 예술단 새내기들로 강 씨는 우아한 백조 '오데트'와 고혹적인 흑조 '오딜'을, 이 씨는 '지그프리드 왕자'로 등장했다. 강 씨는 '오딜'이 왕자를 유혹하며 펼쳐는 연속 32회전 춤을 완벽하게 선보였다. 또 왕궁, 호숫가 등을 재현한 실감나는 무대 연출과 등장인물들의 화려한 의상은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유리 그리고로비치 안무가와 가장 최태지 예술감독의 만남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은 입증하듯 무대위의 무용수들의 춤과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끝날 때마다 관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1막에서 광대가 선보인 36회전은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악마가 왕자와 함께 동행하며 추는 그림자 춤은 다른 버전에는 없는 부분으로 악마와 왕

자가 서로 같은 위치에서 공연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막 1장의 각 나라의 공주들이 추는 헝가리 춤, 러시아 춤, 스페인 춤 등 민속무용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으며 '백조의 호수' 다르 버전에는 없는 러시아 춤이 삽입돼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출연자와 스태프의 연습 장면과 짧은 인터뷰를 담은 내용을 모아 만든 비하인드스토리 동영상도 상영됐고 관객들은 자리를 뜨지 않은 채 영상을 관람했다.

공연에 한 관계자는 "러시아의 제작진이 참여한 작품답게 무대 세트, 의상 등 작품이 화려하고 웅장했다"며 "또 무용수들의 스케일과 동작 등도 커지고 기교와 기량이 상당평준화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 제작진을 투입해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됐지만 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에 비해서는 작품이 다소 평범했고 2막과 4막의 서정적이고 드라마틱한 장면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게 조금 아쉬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립발레단은 오는 21일 경기의정부예술의 전당에서 '백조의 호수' 초청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진취연 '팝아트와 개념미술...' 강의

내일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은 진취연(사진) 한국 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교수를 초청, '미술관 아카데미' 다섯번째 강의를 진행한다.

17일 오후3시 미술관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 주제는 '팝아트와 개념미술 :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서막'이다. 이번 특강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작을 알리는 팝아트와 개념미술에 관한 강의로 과거를 통해 현대 미술의 역사와 창의력에 대해 알아본다. 진 교수는 서울대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학사,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



문의 062-613-715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어머니처럼 써 내려간 금강경

무등현대미술관 류현자 '사모곡...' 전 내달 19일까지



한국화가 류현자의 작업에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빼놓을 수 없다. 류 작가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인 각각색의 '버선'은 어머니의 삶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버선과 연꽃이 어우러진 '사모곡'은 부뚜막에 냉수 한 사발 떠 놓고 가족의 안녕을 비는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영태된 연작이다.

분체, 패본 등 다양한 한국화 재료를 활용해 색색의 버선을 중첩시키며 독특한 조형미를 만들어낸 평면 작업을 진행해온 류 작가가 이번에는 설치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나는 중이다.

무등현대미술관(관장 정송규)은 오는 8월 19일까지 류현자 작가 초대전을 진행한다. '사모곡-그 숲에 들다'라는 주제처럼 전시장에 들어서면 100여개의 작품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어 꼭 '그림의 숲'에 들어온 기분이 든다.

이 작품 역시 어머니에게서 출발한다. 어느 날, 팔순의 어머니가 연필에 침 묻혀가며 불교 경전 '금강경'을 한자 한자 써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그녀는 왠지 애뜻한 마음이 들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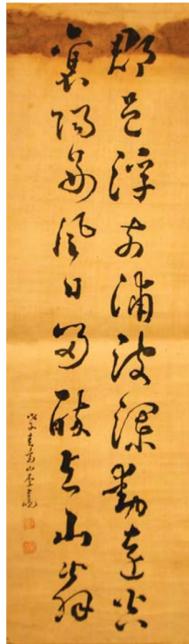
고, 어머니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자 사경(寫經)을 시작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경과 버선·연꽃 그림이 어우러진 작품 100여점이 내걸렸다. 35cmx140cm 한지에 써내려간 작품 하나에는 '금강경' 800자 정도가 들어갔다. 전시장을 찾은 일부 관객이 글씨가 '인쇄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글씨를 쓰는 작업은 만만치 않았다.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비워지며 또 다른 성취감을 얻기도 했다. 촘촘히 써내려간 글과 함께 다양한 색감으로 그린 버선과 연꽃, 오방색을 기초로 한 배경색들이 서로 어우러지며 역동적인 느낌을 전한다. 그밖에 금강경과 그림이 어우러진 부채 작품도 여러 점 선보이고 있다.

류작가는 "'사모곡' 시리즈에 깊이감을 주고 싶어 설치 작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남대 예술대학과 경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류씨는 18차례 개인전을 개최했다. 문의 062-223-6676. /김미은 기자 mekim@

동국진체 대가 이삼만 작품 속으로

은암미술관 28일까지 ... 서홍순·모수명·박문희 등 제자 작품도



원교 이광사가 완성한 동국진체(東國眞體)의 대가 장암(蒼巖) 이삼만(1770-1847)과 그의 세 제자 호산(湖山) 서홍순, 기초(箕橋) 모수명, 호암(湖巖) 박문희의 작품을 함께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은암미술관은 16일부터 28일까지 '동국진체의 개화-흐르는 물따라 떠도는 바람, 장암 이삼만'전을 진행한다.

1770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이삼만은 호남을 대표하는 동국진체 서예가로 18세기 당대의 명필로 알려졌던 이광사에게 글씨를 배웠으며 동국진체를 개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암의 글씨는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천은사의 보제루, 회성당, 경남 하동 칠불암의 편액이 그의 필적이며 대흥사엔 추사와 장암 이삼만의 글씨가 나란히 현판으로 걸려있다. 무량수각이 추사의 글씨고, 가허루가 장암의 글

씨다. 장암은 실험정신이 대단한 작가였다. 칠푼리로 만든 갈필, 대나무를 잘게 쪼개어 만든 죽필, 꼬꼬리 깃털로 만든 앵유필 등 다양한 붓을 직접 만들어 썼다.

추사에 가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19세기 호남 서단을 평정, 서울의 김정희, 평양의 눌인 조광진과 어깨를 나란히 한 3대 명필로 꼽혔던 그의 글씨는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예스러운 배어 있어 흔히 '유수체(流水體)'라 불리며 명성을 떨쳤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19세기에 동국진체의 개화를 이룬 대표적인 4명의 서예가 글씨로 당시 수도원에서 유행하던 추사체가 아닌 호남 동국진체 서법의 진가를 보여준다.

오픈식은 16일 오후 5시 열린다. 문의 062-226-667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1등 맛집 연성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켰음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